교육과정평가연구
The Journal of Curriculum & Evaluation
2007, Vol. 10, No. 2, pp. 377～397

체육수업에서 학생의 소외요인 및 대응방식 이해[1)]

김 윤 희(서원대학교 전문연구교수)

≪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체육수업에서 소외를 경험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소외요인을 분류하고 대응 방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다. 학생들의 체육수업 소외요인은 크게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으로 분류된다. 내적요인은 낮은 운동기능, 불리한 신체조건, 소극적인 성격, 잘못된 교과관, 과거 부상 경험, 외적요인으로는 동료 비난, 무의미한 내용, 강압적인 교사, 열악한 수업환경, 부모의 교과관 등이 포함된다. 학생들은 소외의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에 의해 무력감, 고립, 무의미 등의 소외를 경험한다. 소외를 경험한 학생들은 체육수업 시간에 눈치보기, 위장하기, 참여하지 않기, 보조역할 하기, 친구따라하기, 의무적으로 참여하기, 다른 과제로 때우기 등의 대응방식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는 추후에 소외체험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체육수업 소외, 소외요인, 무력감, 무의미, 고립, 대응방식

Ⅰ. 서론

체육수업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교과라는 인식 때문에 체육을 기피하고 싫어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학계와 교육계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 여학생들의 약 33.0%, 남학생의 8.3%는 체육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윤희, 1999). 이런 학생 중의 상당수는 체육수업을 아무 의미가 없거나 단지 친구와 노는 시간이거나 운동장에 나와 억지로 몸을 움직여야 하는 귀찮은 시간으로 인식한다. 교

1)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5－B0001).

육의 핵심은 교사의 가르침과 학생의 배움에 있다. 하지만 이런 학생에게 배움이란 말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학생이 학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교육의 본연에서 동떨어진 길을 걷고 있는 현상을 '교육소외'라고 한다(고영일 외, 1999).

소외(alienation)란 개인이 그가 속한 사회와의 관계에서 통합되지 못하거나 거리가 있는 상태로, 거의 완전한 감정적 단절상태를 의미한다(Seeman, 1959). 학교의 관리통제 기능이라는 특성상 학생들은 교칙의 선정, 교육내용 선정과 평가, 교사나 동료학생에 의해 소외를 경험하게 되며(옥일남, 1991), 소외와 학업성취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최소영, 1987).

Carlson(1995)은 학생들이 체육수업에서 멀어지는 현상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즉 체육수업 상황에서 소외현상을 무의미, 무력감, 고립으로 분류하였다. 무의미(meaningless)는 체육교과의 학습자체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로 개인적으로 교과의 필요성이나 수업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무력감(powerlessness)은 체육수업 상황에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생기는 무기력한 상태이다. 고립(isolation)은 체육수업시간에 동료나 교사의 관심으로부터 자신만이 벗어나 혼자라는 느낌을 갖는 상태를 의미한다. Carlson의 분류에 기초하면 소외는, 체육수업에 참가한 학생이 수업 분위기에서 멀어지거나 단절된 느낌을 경험하게 되어 체육수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김윤희, 2003, 재인용).

체육에서 학생소외에 관한 연구는 주로 체육교과에 대한 학생의 태도와 인식연구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체육수업 선호와 선호하지 않는 원인을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학생들은 지루하거나 의미 없는 활동이 반복될 때, 교사 및 동료가 비난과 차별할 때, 운동기능이 낮고 신체조건이 불리하다고 인식할 때, 수업환경이 열악하거나 부모가 체육에 관심이 없을 때, 자아개념이나 자긍심이 낮거나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 체육수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김윤희, 2003; 이준상, 2000; 허창혁, 2002; Allison, Pissanos, & Sakola, 1990; Carlson, 1995; Figley, 1985; Fox & Biddle, 1988; Luke & Sinclair, 1991; Potman, 1992; Rice, 1988; Robinson, 1990).

체육수업에서 소외를 경험한 학생들은 체육수업 참여를 기피하게 되고, 그 결과 진정한 의미의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러한 소외체험은 일부 학생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학생 누구나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러한 느낌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학생은 수업에서 완전히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이다(허창혁, 2002).

체육수업에서 학생의 소외체험을 최초로 연구한 Carlson(1995)은 체육을 싫어하는 학생과 담당교사와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소외체험 이유와 대처전략에 대해 조사한 후 체육수업에서의 소외-비소외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소외학생의 참여 유형, 소외와 사회적 상호작용 및 체력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Page 외, 1992), 소외극복을 위한 대안적 프로그램을 개

발한 연구(Halas, 2002)들이 있다.

국내의 경우 소외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소외학생에 대한 연구가 일부 학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김윤희, 2005; 박인향, 1998; 이준상, 2000; 허창혁, 2002). 박인향(1998)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체육수업에서의 소외연구를 하였으며, 이준상(2000)은 Carlson의 이론적 모형을 기초로 초등학교 체육수업 시간에 나타나는 학생소외의 원인과 행동전략을 분석하였다. 또한 허창혁(2002)은 중학교 체육수업에서 학생이 느끼는 소외의 경향과 소외감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김윤희(2005)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생각하는 소외의 개념을 탐색하고, 소외를 진단할 수 있는 한국형 체육수업 소외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이들 연구 모두가 우리나라 학생들의 체육수업 소외현상을 다양한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더 심층적으로 연구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모두 소외체험의 원인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을 뿐 체육수업 소외요인과 대응방식 간의 관련성을 밝히는 데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체육수업에서 소외를 경험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소외의 요인을 분류하고 대응방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며 이들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데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가. 연구 참여학교 및 참여교사

연구 참여학교는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한빛중학교이다. 학교 주위에는 오래된 ○○재래시장과 ○○공업고등학교가 있었다. 학부모들은 주로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특히 학교 건너편은 저소득층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학부모들의 사회경제적인 수준은 중하류 층에 속하였다. 이 학교에는 구청의 지원으로 건립된 스포츠센터가 있었다. 스포츠센터는 구민이 이용하며 수영, 요가, 헬스 등 다양한 스포츠 강좌가 개설되어 있었다. 2학년은 주당 2시간씩 스포츠센터에서 담당 체육교사의 지도하에 수영수업을 받고 있었다.

한빛중학교의 체육시설은 다른 학교에 비해 좋은 편이었다. 운동장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인조잔디가 설치되어 있었고, 스포츠센터 맨 위층에 체육관이 있어 체육시간에 사용하고 있었다. 한빛중학교는 배드민턴부를 육성하고 있었으며, 배드민턴부는 전국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한 경험이 있었다. 체육관은 정규수업 시작 전, 후 또는 공휴일에 배드민턴부가 사용하며, 그 외의 시간에는 체육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한빛중학교에는 총 4명의 체육교사가 있으며, 이 중 1명은 여자 교사였다. 협력교사는 30

대 초반의 교직경력 5년에 접어든 김 교사였다. 김 교사는 남자 교사로 대학시절 학생회장을 지낼 정도로 적극적이며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김 교사는 중등체육 임용고사 출신으로 현재 체육교사 관련 모임에 중요 직책을 맡고 있다. 한빛중학교는 김 교사의 두번째 근무학교로, 이 학교로 전근 오기 전에 김 교사는 학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상류층인 △△중학교에 재직했다. 김 교사는 이전 학교와의 너무 다른 학생들의 가정환경, 학습능력, 학습의욕, 동료교사와의 관계 등에 크게 당황하고 있었다.

나. 연구 참여학생

연구 참여학생을 선정하기 위해, 연구자는 선정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김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김 교사는 연구에 동의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체육부장과 학교장의 동의도 구하였다. 김 교사와 협의하여 김 교사가 지도하고 있는 1, 2학년 학생 중에서 연구 참여학생을 선정하였다. 원래 의도는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었으나 2학년들이 3시간의 체육시간 중 2시간은 수영수업, 1시간은 운동장에서 드리블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대응방식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1학년까지 연구대상을 확대하였다. 1학년은 운동장에서 줄넘기 지도를 받고 있어, 소외요인과 대응방식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연구 참여학생은 1학년 2개 반, 2학년 2개 반에서 반별로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으로 하여 총 24명이다. 연구 참여학생은 체육수업 소외점수, 실기점수, 체육교사의 주관적인 평정 같은 다각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되었다. 먼저, 각 반 학생을 대상으로 소외 정도를 측정하는 체육수업 소외설문(김윤희, 2003)을 실시하였다. 체육수업 소외설문 점수를 기준으로 남녀별로 체육수업 소외점수가 상위 25%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1차 후보로 선발하였다. 김 교사는 1차 후보로 선발된 학생들의 체육수업 점수와 운동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이들의 순위를 결정하여 정해진 인원대로 선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연구참여의 동의의사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심층면담에서 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면담에 함께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점검하였다.

2. 자료수집

가. 심층면담

면담은 여러 학생으로 구성된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주제에 대하여 인터뷰하는 집단심층면담과 개별 학생들과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별면담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집단심층면담은 각 집단별로 2회 이루어졌다. 면담은 수업이 끝난 후 체육관에서 20~30분

동안 이루어졌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면담방식을 이용하였다. 이외에도 수업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김 교사의 허락하에 수업 중이나 수업 후에 해당학생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첫번째 면담은 학생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체육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자는 면담에 앞서 면담의 절차와 연구의 목적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였다. 연구자는 편안한 면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5분 정도 연구 참여학생들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눈 후 면담을 시작하였다. 두번째 면담에서는 체육수업 소외요인인 교과내용, 교사와 동료와의 상호작용, 수업환경 등 체육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전반적인 체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였다. 면담내용은 모두 녹음하였으며, 녹음에서 빠져 있는 학생들의 비언어적인 행동 즉, 면담 분위기, 학생들의 행동, 얼굴표정 등을 별도의 현장노트에 기록하였다.

나. 비참여 관찰

체육수업에 대한 관찰은 1주일에 3일(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4학급(1학년 2학급, 2학년 2학급) 수업을 2주 동안 총 16회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수업진행 시 교사나 학생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체육수업을 관찰하였다. 연구자는 현장기록지(field note)를 이용하여 수업상황을 기록하였다.

3. 자료분석

집단심층면담과 비참여 관찰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는 귀납적 내용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Guba, 1981).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성을 최소화하고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절차를 따랐다.

첫째, 집단심층면담에서 면담한 내용을 날짜별로 컴퓨터에 입력하였으며 전체분량은 A4용지 75매 정도였다. 둘째, 컴퓨터에 입력된 원자료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학생들의 체육수업 소외요인과 대응방식 관련내용에 줄을 그었다. 줄이 그어진 내용들을 정리한 후 소주제로 분류하였다. 다시 소주제를 포괄하는 중간분류주제를 찾고, 다시 중간주제는 유사한 방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대주제를 분류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동료 연구진 검토과정을 거쳤다. 교직경력 10년 이상인 교사 2명과 질적연구 전문가 1명에게 연구자가 분류하고 해석한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의뢰하였다. 동료 연구진들은 출력된 자료를 개별적으로 여러 번 숙독한 후에 원자료를 소주제, 중간주제, 대주제로 분류했다. 분류한 내용은 연구자와 3명의 검토진이 서로 비교하여 차이가 나타났을 경우 토론을 거쳐 최종합의에 도달했다.

Ⅲ. 연구결과

1. 소외요인

가. 내적요인

1) 낮은 운동기능

학생들이 체육수업에서 소외를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낮은 운동기능이었다. 체육수업 소외 체험 학생들의 운동기능은 동료학생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었다. 자신의 운동수준이 동료학생에 비해 매우 낮다고 생각하는 소외체험 학생들은 연습해도 향상이 되지 않는 자신의 체육실력에 실망을 하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실력부족을 자신의 능력과 노력 부족으로 인식하면서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하였다. 특히 체조, 뜀틀 같은 일부 종목은 자신의 운동능력 부족으로 인해 통제가 어려운 종목 중 하나였다.

> 배윤선 : 제가 운동도 잘 안 하고요. 그래서 운동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몸이 진짜 안 유연해요. 체조 같은 것은 정말 못하겠어요. 정말 안 돼요. 해도 안 돼요. 옛날에 뜀틀 했을 때도 뜀틀에서 구르는 것 있었어요. 너무 너무 못해 가지고요. 집에서 연습해도 안 되고 장소도 없고, 마음대로 몸이 따라주지 않아 답답해요.

다른 과목에 비해 체육교과는 자신의 수행능력이 외부로 드러난다. 이런 체육의 특성상 많은 학생들 특히, 운동기능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자신의 운동수준이 동료학생 앞에서 드러나는 것과 동료학생과 비교 당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특히 시험 볼 때에는 자신의 실수나 낮은 운동기능이 친구들에게 보일까 걱정하며 매우 불안해했다.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소외체험 학생들은 경쟁적인 스포츠 활동보다는 비경쟁적인 개별활동을 더 선호하였다. 이러한 운동기능이 낮은 학생들은 체육수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체육수업에서 동료학생들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소외감을 경험하며, 결국에는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체육수업에 참여하기를 기피하게 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도 밝혀졌다(김윤희, 2003; Carlson, 1995; Griffin, 1984; Martinek, 1994; Portman, 1992).

> 박영진 : 하하하. 달리기를 할 때요. 2명씩 뛰잖아요. 얘는 빠른데 나는 느리면 그것도 부끄럽잖아요. 그런 것도 신경 쓰이고요. 많아요. 하기 싫어요.

2) 불리한 신체조건

소외체험 학생들은 자신들의 불리한 신체조건 때문에 운동기능 수준이 매우 낮으며 체육수업도 재미없고 무의미하다고 하였다. 대체적으로 학생들의 키와 체중은 동료학생에 비해 작거나 뚱뚱한 편에 속했다. 이들이 생각하는 체육은 키, 몸무게, 운동신경 같은 신체조건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교과이다. 친구보다 키가 작거나 뚱뚱한 자신의 신체조건은 체육수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동료학생들과 항상 비교된다. 이들 학생이 교사의 눈을 피해 순서를 바꾸거나 억지로 참여하는 모습이 수업관찰 시 자주 발견되었다.

> 함유진 : 높이뛰기, 뜀틀할 때도 그랬어요. 키 크고 날씬한 애들은 몸이 가벼우니까 키 작고 날씬한 애들은 또 체형이 작으니까 가볍게 뛰어넘는데. 저처럼 키 크고 뚱뚱한 애들은 좀 그래요.

신체조건이 불리한 학생들은 동료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운동기능 수준이 드러나는 높이뛰기, 달리기 같은 개별활동보다는 자신의 존재가 크게 드러나지 않은 모둠활동을 선호하였다. 교사에게 지목을 받아 시범을 보이는 개별적인 활동이나 학생들 앞에 드러나는 행동에 대해 강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표현하였다.

> 김미진 : 저는 키가 좀 작고 뚱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 같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뜀틀이나 달리기 같은 것 할 때 친구들이 쳐다봐서 그래요. 짐볼 같은 것은 단체로 하니까 제가 잘 못해도 눈에 띄지 않잖아요.

3) 소극적인 성격

소외체험 학생들은 대부분 성격이 소극적이며 면담 내내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학생들은 집단면담 시 대답을 강요하지 않고 자신이 원할 때에만 대답을 하도록 하였으며 집단면담이 끝난 후 따로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소극적인 성격의 아이들은 특히, 여학생의 경우 신체조건이 일반 학생들과 별 차이가 없었지만 남학생의 경우에는 키가 작거나 뚱뚱한 경우가 많았다. 남학생은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게임이나 수업시간에 자신을 무시하는 동료 남학생에게 대들지 못하고 속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매사에 의욕이 없으며, 특정한 이유도 없이 체육을 싫어하거나 움직이기 귀찮아했다.

> 윤재혁 : 움직이는 게 너무 귀찮아요.

소극적인 학생은 특히, 개인운동이나 시험 볼 때 자신의 순서가 돌아오는 것이 무섭다고 했다. 체육수업에서 이들 학생들은 스스로 병풍처럼 제자리에 서 있거나 자신의 순서가 오면 하는 흉내만 내며, 교사 몰래 자리를 바꾸기도 하였다. 모둠활동에서는 모둠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한 경우에는 교사와 동료의 눈을 피해 체육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4) 잘못된 교과관

배우는 내용이 무의미해 체육수업에서 소외를 경험하는 학생들의 특징 중 하나는 체육에 대해 잘못된 교과관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즉 체육시간은 노는 시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교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도 학생들은 체육을 머리를 써서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휴식과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atliffe, Imwold & Conkell, 1994).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장들도 체육을 휴식시간과 체력단련을 위한 시간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Miller, 1988; Lawson, 1988).

체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형성에는 신체활동이 자유로워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교과라는 체육 교과의 특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학생들이 배우는 대부분의 교과목들은 교실과 책상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암기와 필기 위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체육수업은 운동장에서 실습위주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친구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움직일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학생들이 체육수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지만, 친구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노는 시간으로 인식하게 되는 요인이기도 했다. 체육수업에 대해 잘못된 교과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수업시간 내내 친구들과 장난치거나 꾀병을 부리며 수업시간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수영수업의 경우에는 수영복을 준비해 오지 않거나 생리 등의 이유로 아예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 정문교 : 체육이요. 노는 시간이요. 저희처럼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불쌍한 학생들은 체육시간에 놀아야죠. 체육시간에 공부하면요? 당연히 안 돼죠.

5) 과거 부상경험

학생들과 면담을 하면서 새로운 내용이 발견되었다. 이전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과거의 부상경험이나 부상 두려움이 체육수업 소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다. 과거 체육수업에서 부상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같은 종목을 할 때 강한 두려움을 보이며 체육수업 참여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면담자 중 신정원은 초등학교 시절 부상경험 때문에 체육수업 참여를 기피하였다. 그 순간이 떠올라 전혀 체육수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였

다. 또한 과거 부상경험이 없는 학생들도 자신의 능력보다 어려운 과제를 시도하려고 할 때 부상을 당할까 걱정되어 참여를 못하고 기피하게 된다고 하였다.

> 신정원 : 체육이 싫은데 부상 때문에 더 무서워요. 다칠 것 같아요. 다른 애들 보면 잘하는 것 같아서 쉽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막상 하려고 하면 대개 동작 안 되고 그렇고 잘 못하면 다치니까.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때 인대 늘어난 이후로부터 조심하게 되고 그래요. 제가 몸으로 직접해야 하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해요.

나. 외적요인

1) 동료의 비난

대체로 운동기능이 낮은 학생들은 동료학생이 비난할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스포츠교육 모형, 이해중심게임수업 모형, 협동학습 모형 등 다양한 모형이 체육수업에 적용되면서, 체육시간에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소외체험 학생들은 대체로 실수하면 동료학생들이 비난하지 않을까, 자기 때문에 팀 점수를 적게 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개인운동에서도 자신의 동작이 이상해 친구들이 비웃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그런 경향이 더 심했다.

실제로 일부 학생들은 게임이나 팀 활동에서 동료한테 비난과 놀림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 동료학생들이 특별히 비난하지 않아도 체육수업 특히 게임 상황에서 동료학생들이 자신들을 잘 배려해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수업관찰 시 자유시간에 동료학생들이 공을 잘 패스해주지 않는 장면이 자주 목격되었다. 동료학생들에게 배척당하면서 자신의 운동능력에 대해 회의감을 갖게 된다. 이러한 동료학생들과의 부정적인 경험은 학생들에게 좌절감과 학습된 무기력을 제공하며, 심한 경우에는 참여를 기피하거나 아예 포기하였다. 일부 남학생의 경우에는 자존심 때문에 일부러 무시한다고 하였다.

> 황민욱 : 놀리지는 않죠. 그런데 비교되죠. 특히 체육시간에 뚱뚱한 애들은 음… 뜀틀을 예로 들자면 무거우니까 걸터앉게 되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앞에 있는 남자애들이 누구는 날씬하고 키 크고 운동 잘하고. 야, 쟤는 운동 잘한다. 그런데 쟤는 뭐니 그래요.

> 이경진 : 제가 보기에 잘하는 애들이 못하는 애들한테 공도 잘 안 주고 자기네들끼리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자애들끼리는 안 그래요. 남자애들 할 때요. 잘하는 애가 있어야 슛을 하고 점수를 따잖아요. 다른 반하고 시합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잘하는 애를 내보내려고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 서로 조 배치도 하고, 못하는 애들은 가만 있고, 잘하는 애들끼리 다 해요.

2) 무의미한 내용

배우는 내용의 난이도가 학생들에게 소외를 제공하였다. 배우는 내용의 난이도가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의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업내용에서 아무런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일부 학생은 과제의 난이도가 너무 낮아 배우는 내용이 너무 시시하였다. 이런 학생들은 교사의 눈을 피해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교사가 자신의 근처로 다가오면 시범용으로 한번 해보였다. 교사도 그런 학생에게 별 다른 조치를 치하지 않으며 그대로 두는 편이었다.

> 김대윤 : 쌩쌩이 20개 하면 A거든요. 저, 초등학교 때 태권도학원에서 배워서 쌩쌩이 잘해요. 지금 몇 시간째 쌩쌩이만 하는데 재미없고 시시해서 하기 싫어요. 이렇게 놀다 시험 봐도 A 받아요.

반면 일부 학생은 배우는 내용이 너무 재미없고 너무 어렵다고 하였다. 특히 달리기나 체조 구르기 같은 종목은 재미없을 뿐만 아니라 연습해도 잘 되지 않는 부분이었다. 이외에도 지금 배우고 있는 드리블은 초등학교 때 배운 것과 별 차이가 없으며, 너무 오랫동안 배워 재미가 없다고 했다. 특히 체육시간에 배우는 농구, 배구, 뜀틀, 앞구르기 같은 종목은 실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학교에서 왜 가르치는지 모르겠다고까지 했다. 이러한 수업내용에 대한 인식은 체육수업의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였다.

> 이경진 : 학교에서 배우는 이렇게 형식적인 것 싫어요. 뜀틀하고 달리기하고 그런 것. 축구 같은 것 괜찮은데, 뜀틀, 달리기, 철봉 막 그런 것 왜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3) 강압적인 교사

학생들의 참여의욕을 저지하고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 중의 하나는 교사의 수업방식이었다. 다른 교과의 경우 자신의 신체적인 조건이나 상태에 따라 참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신체활동이 주류를 이루는 체육수업은 자신의 신체상태와 관계없이 수업시간 내내 몸을 움직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교사는 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수업참여를 강요하며, 하기 싫고 못하는 것을 억지로 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김 교사는 운동기능이 낮은 학생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더 많은 연습기회와 설명기회를 제공하였다. 체육수업 참여에 어떠한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은 김 교사의 이러한 행동은 매우 부담스러워 했다.

> 김민지(체육부장 교사가 지도하는 반 학생) : 선생님, 보세요. 수영장 대개 덥잖아요. 저 진짜 생리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우리는 밖에 나가 있고 싶은데. 선생님이 자꾸 수영장 안에 이렇게 서 있으라고 하잖아요.

또한 교사는 학생의 통제수단으로 기합과 체벌을 사용하였다. 학생들은 교사가 단체기합을 주거나 욕할 때 교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에는 체육복 미착용, 지각, 수업시간의 소란 등의 이유로 체육교사가 단체기합을 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다.

4) 열악한 수업환경

한빛중학교는 인조잔디와 체육관이 있어 다른 중학교에 비해 체육환경은 좋은 편이었다. 하지만 체육관에서 수업을 할 때, 대개 2~3반이 동시에 수업을 받아 굉장히 시끄러웠으며, 통풍이 잘 되지 않아 더웠다. 운동장에는 인조잔디가 깔려 있었지만 6월이라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고 더웠으며, 땀을 씻을 장소도 화장실밖에 없었다. 인조잔디에 깔려 있는 고무조각은 조금만 뛰어도 튕겨져 나오며, 체육수업이 끝나면 체육복이나 신발에 고무조각이 남아 있었다. 또한 탈의실이 없어 체육복을 갈아입기도 불편했다.

> 천성민 : 여자애들은 교실에서 갈아입는데 남자들은 화장실에서 갈아입거든요. 당연히 귀찮죠. 화장실이 좁아서 대충 입고 나와요.

5) 부모의 교과관

많은 연구대상 학생들은 부모가 이혼을 해 한 부모 가정이거나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또한 부모와 함께 살고 있어도 모두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하는 편이었다.

학부모들은 학생과 마찬가지로 체육보다는 주지과목 성적에 관심이 더 많았으며, 체육점수보다는 주지과목 점수를 더 잘 받길 원하였다. 특히 체육수업에서 소외를 경험하는 학생의 부모들은 신체활동에 별로 관심이 없으며, 자녀와 함께 운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 임준섭 :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잘 받으면 좋고 못 받아도 그만이죠. 영어, 수학은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죠. 저희 부모님이요. 주요과목만 걱정하시고. 관심 갖으세요.

2. 대응방식

가. 눈치보기

눈치보기형 학생은 교사가 보는 앞에서만 하는 척을 하며 교사의 눈을 피해 친구들과 놀거나 딴짓을 하였다. 눈치보기형 학생들은 배우는 내용이 너무 재미없고 자신 없지만, 성적은 잘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해당되었다. 배우는 내용수준이 너무 쉬울 때에도 나타났다.

> 유진이는 단짝 민정이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교사가 자신들 쪽을 쳐다보자 유진이는 민정이에게 눈치를 준 후 줄넘기 연습을 한다. 교사가 다가오자 "선생님 저희 잘하죠?"라며 웃는다. 교사가 다른 쪽으로 가자 다시 줄넘기를 멈추고 민정이와 이야기한다(관찰내용).

나. 과제에 참여하지 않기

체육수업에서 소외를 체험하는 학생 중 일부는 체육복이나 수영복을 준비해 오지 않는 등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유형의 학생은 대부분 가정환경 수준이 낮으며, 체육뿐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거의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체육시간 내내 벤치에 앉아 있거나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가장 특이한 사실은 이러한 학생들에 대해 일부 체육교사(연구자가 2학년 3반 수업을 관찰하는 수요일 날, 옆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박 교사)는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연구 참여교사도 처음에는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였지만, 오히려 학생들과의 갈등이 커져 현재는 거의 포기상태였다.

> 옆에서 체육부장인 박 교사가 농구수업을 하고 있다. 5명의 여학생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고, 박 교사는 나머지 학생들에게 패스를 설명하고 있다. 수업시간 내내 5명의 학생들은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놀고 있다. 박 교사는 5명의 학생들을 무시한 채 나머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관찰내용).

다. 보조역할하기

이 유형의 학생들은 동료학생의 비난이나 실패가 두려워 게임이나 모둠활동에서 보조역할을 하는 경우였다. 즉 게임에서 스스로 수비역할을 하거나 동료가 지시한 것만을 하였다. 수비 할 때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으며, 자신 앞으로 공이 오면 다른 친구에게 양보하였다. 보조역할하기형 학생들은 교사가 지적하면 그때만 조금 움직였다. 쉬는 시간이나 설명을 들을

때 말이나 표정 없이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았다. 대체적으로 운동기능이 낮고, 성격이 소극적인 학생이 대부분이었다. 남학생의 경우 키가 작거나 뚱뚱한 신체조건을 갖고 있는 학생이 많았다. 보조역할하기형 학생에 대해 동료학생들의 반응은 너무 답답하다는 것이었다.

> 체육관에서 1학년 3반 남학생들이 반코트 농구게임을 하고 있다. 영훈이는 골키퍼 앞에 가만히 서 있다. 공이 근처에 오자 머뭇거리자 옆에 있던 친구가 재빨리 달려와 받는다. 공이 상대코트로 넘어가자 영훈이는 골대 근처에 가만히 서 있는다(관찰내용).

> 이영훈 : (침묵)…공이 제 쪽으로 올 때 조금 무서웠어요. 혹시 공 못 잡을까…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지 않는데요. 친구들한테 미안해서요.

라. 위장하기

소외체험 학생의 대응방식을 관찰하면서 발견한 재미있는 사실 중 하나는, 일부 남학생은 낮은 운동기능을 감추기 위해 표정이나 행동을 위장한다는 것이었다. 운동기능이 낮은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잦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좌절감을 느끼고, 그 결과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하게 되었다(김윤희, 2003; Portman, 1992). 하지만 친구들에게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잘하는 척하였다. 뚱뚱한 기영이는 자신의 낮은 운동기능을 감추기 위해 연습하기 보다는 친구의 동작을 지적해주었다.

> 기영이는 줄넘기를 한번 넘는다. 줄이 발에 걸리자 옆의 친구에게 다가가 훈수를 둔다. “줄은 이렇게 잡는 거야. 잡아봐. 높이 점프하고 그래. 맞아”(관찰내용).

위장하기는 선행연구(Carlson, 1995)에서 밝혀진 싫은 감정 숨기기 전략과 유사한 점이 있었다. 싫은 감정 숨기기 전략은 자신의 싫은 감정을 숨기고 체육활동이 재미있는 듯이 참가하는 것이었다. 싫은 감정을 숨긴다는 것은 유사하였다. 하지만 선행연구의 경우 싫은 감정 숨기기는 체육수업 불참에 의한 불이익이 두렵기 때문인 반면, 위장하기는 자신의 낮은 운동기능을 감추고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 나타난 행동으로 해석되었다.

마. 의무적으로 참여하기

이 유형은 자신의 운동기능이 낮지만, 동료학생이나 팀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였다. 이 유형의 학생들은 배우는 내용이 재미도 없고 운동신경이나 신체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체육시간에 자신이 없고 두려웠다고 하였다.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해야 할 최소의 것에만 참여하며 가능하면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자신

의 순서가 오면 뒷사람에게 양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유형의 학생들은 성격이 소심하기 때문에 수업에는 참여하지만 체육수업에 별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의무적으로 참여하면서 가벼운 부상을 당하기도 하며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하였다.

> 4팀으로 나누어 한 사람씩 드리블하면서 반환점 돌아오기를 하고 있다. 영미는 반환점을 돌아온다. 다시 순서가 오자 슬그머니 맨 뒤로 간다(관찰내용).

바. 친구 따라하기

친구 따라하기형은 연습을 하다가도 친구가 앉아 놀면 자신도 친구를 따라 삼삼오오 짝을 지어 앉아 이야기하는 유형으로 여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대응방식 중 하나였다. 그런 학생들은 배우는 내용이 재미없고 무의미하다고 느끼며, 다른 무엇보다도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친구가 더 좋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였다.

교사도 지나가면서 연습하라 이야기만 할 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눈치보기형 학생들과의 차이점은 눈치보기형 학생들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교사가 보는 앞에서는 하는 척을 하고 교사가 보지 않을 때에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친구 따라하기형 학생은 체육점수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특히 자유시간의 경우에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일부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으나 친구와 멀어질까 앉아 이야기한다고 하였다.

사. 다른 과제로 때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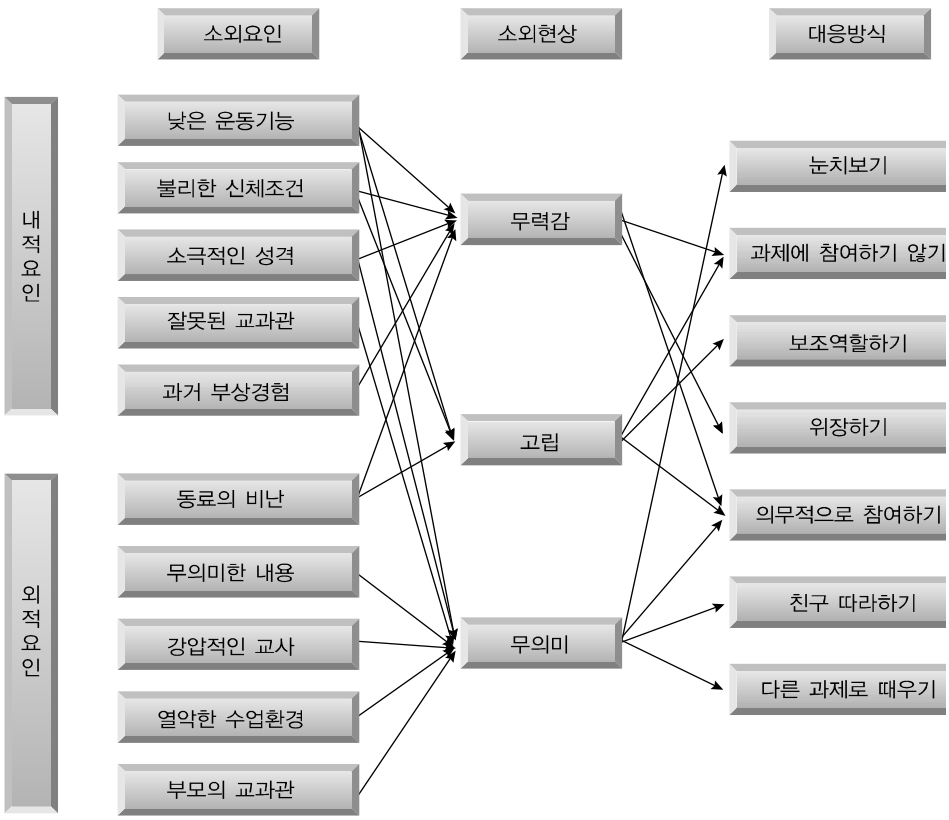
다른 과제로 때우기형은 연구 참여학교에서만 볼 수 있는 유형이었다. 수영의 경우 생리를 하거나 수영복을 준비해 오지 않으면, 수영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 대신 교사가 제공한 수영관련 내용을 노트에 그대로 옮겨적어야 했다. 일부 학생의 경우에는 체육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수영 리포트 쓰기로 대신하였다. 다른 과제로 때우기형은 배우는 내용의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선희는 초등학교 때 이미 수영을 배웠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너무 시시했다. 친구들이 수영을 너무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아도 만점 받을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혜림이는 정반대의 경우였다. 혜림이는 물이 무서워 참여를 기피하며, 열심히 연습해도 실력이 향상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는 경우였다.

> 박선희 : 안 해도 괜찮아요. (옆에 있는 친구를 쳐다보면서) 나 지난번 시험에서 통과했지? 우리 반 여자 중에서 저만 통과했어요. 시험이요. 시험 볼 때는 가볍게 하면 돼요. 그래도 만점 받는걸요.

Ⅳ.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체육수업에서 소외를 경험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소외요인을 분류하고 대응방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며, 이들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에 기초하여 체육수업 소외학생들의 소외요인, 소외현상, 대응방식 등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양한 소외요인은 무력감, 고립, 무의미 등의 소외현상을 제공하며, 소외를 경험한 학생들은 여러 방식으로 체육수업에 참여해 이들 간에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들이 체육수업에서 소외를 경험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였다. 즉 학생들의 체육수업 소외 요인에는 낮은 운동기능, 불리한 신체조건, 소극적인 성격, 잘못된 교과관, 과거 부상경험 같은 내적요인과 동료 비난, 무의미한 내용, 강압적인 교사, 열악한 수업환경, 부모의 교과관 등의 외적요인이 포함되었다. 낮은 운동기능, 불리한 신체조건, 소극적인 성격 등과 같은 내적요인이 외적요인보다는 더 많은 무력감, 고립, 무의미 등의 소외경험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림 1〕 체육수업 소외요인, 소외현상, 대응방식 관계

이중에서도 낮은 운동기능이 소외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이미 선행연구에서도 밝혀졌다(김윤희, 2003; 이준상, 2000; 허창혁, 2002; Carlson, 1995; Portman, 1992). 즉 자신의 운동기능이 낮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체육수업에서 잦은 실패를 하면서 무력감, 고립, 무의미 등을 경험하였다. 또한 낮은 운동기능은 소극적인 성격, 불리한 신체조건, 동료학생들의 비난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운동기능이 낮은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키가 작거나 비만 등 체육에 불리한 신체적인 조건을 갖고 있으며, 성격은 소극적이었다. 동료학생들이 비난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체육수업 자체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였다. 이런 소외체험 학생들에게 체육수업은 귀찮고, 자신 없고, 자신이나 학교공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시간이었다.

소외요인을 통해 소외를 경험한 학생들은 체육수업에서 다양하게 대응하였다. 무력감을 경험한 학생들은 과제에 참여하지 않기, 위장하기, 의무적으로 참여하기처럼 과제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반면 고립을 경험한 학생들은 동료의 시선을 의식해 보조역할을 하거나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무의미 경험 학생들은 눈치를 보면서 참여하거나 다른 과제로 대처하는 등 교사의 눈을 피해 참여하였다.

선행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체육수업 소외학생들의 체험을 규명하는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나온 주제들을 기준으로 삼아 그 주제에 부합하는 결과가 본 연구에서 발견되었는가 여부를 찾는 과정이므로 연역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해서 소외체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과 우리나라 중학생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표 1〉은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표 1〉 좌측은 소외체험 학생들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박인향, 1998; 이준상, 2000; 전호정, 2002; 허창혁, 2002; Carlson, 1995; Griffin, 1984)의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1〉 우측에는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였으며,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은 주에서 밝혀 놓았다. 왼쪽에 제시된 선행연구 중 Carlson(1995)은 처음으로 체육소외 학생들의 체험을 규명한 대표적인 논문이다. 국내의 경우 박인향(1998)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체육소외를 연구하였으며, 이준상(2000)은 초등학생과 허창혁(2002)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체육소외 체험을 밝혔다. 나머지 두 편의 연구는 소외 체험학생들의 대응방식 특성이 드러나 있는 결과를 선택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가 선행연구 결과와 얼마나 일치하였는가를 알아보았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결과의 상당부분은 본 연구에서도 발견되었다. 즉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체육수업 소외요인과 대응방식은 본 연구결과와 비교했을 때 자료분류와 결과서술의 구체성에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였다. 이와 같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과거 부상경험, 부모의 교과관, 불리한 신체조건, 소극적인 성격 등을 소외요인으로 언급하였다. 또 대부분의 체육수업 소외체험 학생들은 운동기능 수준이 낮으며 잦은 실패를 경

험하면서 참여를 기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운동기능이 높은 학생도 과제의 난이도가 너무 쉬우면 소외를 경험하고 있어 선행연구와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1〉 선행연구와의 비교

선행연구	본 연구
Carlson(1995) : 체육수업 소외이유와 행동	
1. 소외학생의 66%가 운동기능이 평균 이하로 인식	유사한 결과[1]
2. 체육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	매우 유사한 결과
3. 체육이 자신의 능력 밖이라고 생각	유사한 결과
4. 남들 앞에서 체육활동 참여에 대한 부담감	매우 유사한 결과[1]
5. 은폐, 관람, 방관, 속임, 자기추방 등의 행동전략 사용	유사한 결과[2]
Griffin(1984) : 여학생들의 참여유형	
1. 도전포기, 기회양보, 참여기피, 행동묵인의 참여 형태	유사한 결과[3]
박인향(1998) : 중등학생 소외인식	
1. 소외원인 : 다양한 교수방법의 부재, 수업운영 미숙, 교과의 필요성에 대한 의미 부족, 자신감 부족	유사한 결과[4]
이준상(2000) : 초등학생의 소외원인과 행동전략5)	
1. 소외원인 : 신체능력, 수업내용, 교사행동, 동료학생	유사한 결과
2. 행동전략 : 꾀병부리기, 보조역할하기, 순서바꾸기, 양보하기, 들러리 서기, 요령피우기	매우 유사한 결과
허창혁(2002) : 중학생의 소외경향과 원인6)	
1. 소외원인 : 낮은 운동기능, 교수행동, 수업내용, 잘못된 교과관	유사한 결과
2. 무의미 : 낮은 운동기능, 잘못된 교과관	유사한 결과
3. 무력감 : 낮은 운동기능, 교수행동	유사한 결과
4. 고립 : 낮은 운동기능, 교수행동, 수업 분위기	유사한 결과
전호정(2002) : 여학생들의 참여 저해요인	
1. 참여 저해요인 : 흥미부족, 소극적 성격, 강박적 외모의식, 사교중심 수업참여, 지나친 타인의식, 제한된 교과내용, 시설 및 용구 부족	유사한 결과[7]

주. 1) 본 연구에서는 좌절감은 두드러지지 않고 창피함을 느낀다는 응답이 많음.
2)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수업에 빠지는 속임전략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음. 본 연구에서는 수영복, 체육복 등을 준비해 오지 않아 수업에 빠짐.
3) 본 연구결과에서는 도전 포기형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음.
4) 본 연구결과에서는 교사의 억압적인 수업방식이나 과제의 난이도에 대해 언급했을 뿐 다양한 교수방법 부재, 수업운영 미숙 같은 구체적인 교사수업 행동 내용은 없음.
5), 6) 분류세분화에 차이가 있을 뿐 유사함. 하지만 소극적인 성격, 불리한 신체조건, 과거 부상경험, 부모의 교과관 등은 본 연구에서 나타남.
7) 사교중심 수업참여는 여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친구 따라하기형과 유사함.

본 연구에서 도출된 핵심적인 결과가 체육수업에 주는 의미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소외를 경험하는 학생들이 체육수업 참여를 기피하게 되고 체육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체육수업 내용뿐만 아니라 수업방식을 고려할 때 소외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소외학생들은 경쟁적인 팀스포츠보다는 비경쟁적인 스포츠를 선호한다. 수준별 집단편성,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시하는 과제중심으로 수업이 운영되기를 희망하였다. 교사는 이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해하고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들의 소외체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 중의 하나는 수업내용에 대한 자신감이다.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하면 교사의 지도 방식, 배우는 내용 등 수업과 관련된 내적, 외적인 요인 모두가 문제되지 않는다. 체육교사는 수업내용을 선정할 때 운동기능이 낮은 학생들도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능중심의 체육수업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또한 수업 중에도 교사는 학생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들의 자신감을 길러주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소외학생들의 대응방식은 교사의 지도방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특히 교사의 강압적인 수업방식에 의해 학생은 다른 과제로 때우거나 과제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 교사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세심하게 학생들을 배려해야 한다.

넷째, 학교뿐만 아니라 특히 부모의 노력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부모 자신이 규칙적으로 운동에 참여하기, 자녀와 함께 운동하기, 자녀의 체육활동에 관심 갖고 지원하기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질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체육수업에서 소외를 경험하는 학생들의 체육수업 소외요인, 소외현상, 참여형태와의 관계를 도식화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체육수업 소외체험은 추후에 소외체험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고형일 외 (1999). **신교육사회학**. 서울: 학지사.

김윤희 (1999). 중학생들의 체육수업 선호이유 분석.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6**(2), 93-110.

김윤희 (2003). 운동기능이 낮은 학생의 체육수업 체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0**(1), 57-76.

김윤희 (2005). 체육수업에서 학생소외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2**(3), 121-142.

박인향 (1998). **중등 체육수업에서의 학생소외**.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옥일남 (1991). **교실환경에서 나타나는 학생소외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이준상 (2000). **초등학교 체육수업에서의 학생소외의 원인과 행동전략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전호정 (2002). **중학교 여학생의 체육수업 참여형태와 참여저해요인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최소영 (1987). **소외와 학업성취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허창혁 (2002). **중학교 체육수업에서 학생소외의 경향과 원인**.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Allison, P. C., Pissanos, B. W., & Sakola, S. P. (1990). Physical education revisited. The institutional biographies of preservice classroom teacher.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61*(5), 76-79.

Carlson, T. B. (1995). We hate gym: Student alienation from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14*, 467-477.

Figley, G. E. (1985). Determinants of attitudes toward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4*, 229-240.

Fox, K., & Biddle, S. (1988). The child's perspective in physical education: Part 2. Children's participation motives. *British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19*, 79-82.

Griffin, P. S. (1984). Girls' participation patterns in a middle school team sports unit.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4*, 30-38.

Guba, E.G. (1981). Criteria for assessing the trustworthiness of naturalistic inquiries. *Educational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Journal, 29*, 75-92.

Halas, J. (2002). Engaging alienated youth in physical education: An alternative program with lessons for the traditional class.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24*, 267-286.

Luke, M. D., & Sinclair, G. D. (1991).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s' attitudes toward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11*, 31-46.

Martinek, T. J. (1994). Why kids give up: An examination of how teacher and parental expectations influences self-perception of children.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13*, 402-410.

Miller, D. M. (1988). Preparing physical educators: Some new ways needed.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59*(5), 68-72.

Page, M. R., Frey, J., Talbert, R., & Falk, C. (1992). Children's feeling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Relationship to measures of physical fitness and activity.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11*, 211-219.

Portman, P. A. (1992). *The experience of low-skilled students in public school physical education: The significance of being chosen las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Ratliffe, T., Imwold, C., & Conkell, C. (1994). Children's views of their third grade physical education class.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5*(2), 106-112.

Robinson, D. W. (1990). An attributional analysis of student demoralization in physical education setting. *Quest, 42*, 27-39.

Seeman, M. A. (1959). On the meaning of alien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4*, 783-791.

• *논문 접수 : 2007년 9월 1일 / 수정본 접수 : 2007년 10월 2일 / 게재 승인 : 2007년 10월 18일*

ABSTRACT

Understanding the Factors and Responses of Middle Schoolers' Alienation at Physical Education Class

Yoonhee Kim(MOEHRE-KRF Research Fellow, Seaw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on causes of student alienation and action strategies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of middle school. Twenty-four middle school students who are enrolled in a middle school physical education classes in Seoul were identified as alienated students using combined indices such as teachers' ratings, alienation survey scores and skill test scores. The alienated students were interviewed both individually and in a small group. Their participation in physical education class was also observed and videotaped. Major causes of student's alienation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were low skill, passive character, limits in physical condition, physical education as a marginal subject, curriculum dissatisfaction, conflicts with classmates, poor facility and environment, dissatisfaction with teacher. Alienation students experienced the feelings of meaninglessness, powerlessness, and isolation. They were subjected to criticism and harassment by their peers. The alienated student used certain action strategies to avoid physical education classes such as helping others, changing order, yielding, serving as a bridesmaid, pretending excellent.

Key Words : alienation, factors of alienation, action strategy, meaninglessness, powerlessness, isolation